

김기봉 | 책임연구원 (제 7224)

- **주요 뉴스:** 美 7월 생산자물가, 3년래 최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, 금리안하는 시기상조
 - 미국 대통령, 러시아와의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예상
 - 미국 역레포 잔액, 4년래 최저치 기록
 - S&P, 인도의 신용등급을 18년만에 상향조정
- **국제금융시장:** 미국은 높은 생산자물가로 인한 금리인하 기대 축소가 달러금리에 영향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생산자물가 충격과 저가 매수세가 엇갈리며 보합
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-러시아 정상회담 기대 등으로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생산자물가 예상치 상회로 금리인하 기대가 후퇴하며 상승
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5%, 0.3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9월 금리동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승
독일도 미국의 금리 상승 등에 영향

※ 뉴욕 1M NDF 증가 1386.8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389.1원, 0.52% 상승). 한국 CDS 보합

		8/14일	8/13일	전일대비			8/14일	8/13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6,468.5	6,466.6	+0.03%	국채 금리 10y	미국	4.28%	4.23%	+5bp
	유럽	553.87	550.85	+0.55%		독일	2.71%	2.68%	+3bp
	중국	3,666.4	3,683.5	-0.46%		영국	4.64%	4.59%	+5bp
	일본	42,649	43,275	-1.45%	CDS 5y	한국	21bp	21bp	-0bp
	한국	3,225.7	3,224.4	+0.04%		중국	43bp	43bp	-0bp
	달러지수	98.20	97.84	+0.36%	위험 지표	EMBI+	-	339	-
환율	유로화	1.1648	1.1705	-0.49%		VIX	14.83	14.49	+2.35%
	엔화	147.76	147.38	-0.26%		WTI유	63.96	62.65	+2.09%
	위안화	7.1815	7.1766	-0.07%	원자재	구리	448.0	449.8	-0.40%
	원화	1,382.0	1,381.7	-0.02%		금	3,335.4	3,355.9	-0.61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7월 생산자물가, 3년래 최고치.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, 금리인하는 시기상조

- 7월 생산자물가지수는 기계, 장비 부문을 중심으로 전월비 0.9% 상승하여 시장예상치 0.2%를 크게 상회하는 동시에 '22년 6월래 최고치를 기록(전년비는 3.3%). 관세가 생산자물가 상승을 통해 기업이익을 압박할 수 있으며 높은 생산자물가가 소비자물가로 전이될 소지도 상당(Nationwide)
- 세인트루이스 연은 무살렘 총재는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9월 금리인하는 시기상조이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50bp 인하는 지지하기 어렵다는 입장. 최근 데이터가 고물가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물가와 성장을 동시에 고려하겠다고 발언
- 반면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븐플로우의 마크 서머린은 물가가 2~3% 범위로 안정적이며 노동시장 약세가 심화되고 있어 50bp 금리인하가 타당하다고 주장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대통령, 러시아와의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예상

-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미국-러시아 정상회담을 앞두고 푸틴이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 준비가 되어있으며 회담의 실패 확률은 25%에 불과하다고 발언. 러시아 관계자는 양국이 전쟁 외에도 상호투자 확대와 핵무기 통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
-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러-우 전쟁의 휴전이 성사되길 희망한다면서,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황이 계속 변하고 있어 협상이 시급함을 강조

■ 미국 역레포 잔액, 4년래 최저치 기록

- 14개 금융기관이 예치한 역레포 잔액은 총 288억달러로 '21년 4월 이후 최저. 최근 단기국채 발행 확대 등이 역레포 잔액 감소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. 일각에서는 저조한 역레포 잔액이 시장유동성 고갈, 충격 흡수력 감소 등을 유발할 가능성을 제기

■ 미국 리치먼드 연은 총재, 노동시장은 아직 양호

- 기업 심리는 양호하고 해고도 줄어들면서 노동시장 약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발언. 이외 관세·이민·세법 등 정책방향도 구체화되면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입장

■ 미국 재무장관, 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매수 가능성 차단

- 베센트 재무장관은 현재 미국 정부가 약 200억달러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언. 그러나 이는 범죄 등을 통해 압수된 비축분이며 정부가 직접 비트코인을 매입할 계획은 없다고 일축

■ 영국 2분기 GDP, 시장예상치 상회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망은 부정적

- 2분기 GDP는 전기비 0.3% 늘어나면서 예상치(0.1%)를 상회. 다만 기업투자 -1.1%, 소비 0.1% 등으로 부진한 반면, 정부지출은 1.2% 늘어나는 등 정부의존도가 심화. Capital Economics는 향후 재정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증세가 불가피하여 영국 경제의 하방압력이 지속될 것을 예상

■ S&P, 인도의 신용등급을 18년만에 상향조정

- 해당 신평사는 인도의 신용등급을 BBB-에서 BBB로 높이면서 고성장과 재정건전성 개선 전망 등을 상향근거로 제시. 향후 수년간 6% 이상의 고성장 지속되면서 '29년 GDP 대비 정부부채가 78%로 현 수준 대비 약 5%p 줄어들 전망
- 이외에도 물가가 1%대로 안정적이며, 경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60% 이상으로 높아 트럼프 관세의 성장피해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

■ 이란 외무장관, 유럽 제재에 대응하여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고려

- 최근 영국·프랑스·독일은 이란이 8월말까지 핵 협상 미재개할 경우 10년전 해제했던 제재를 다시 부과할 것이라고 통보.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중국, 러시아와 밀착 협력하면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발언

■ 미국 무역고문, 의약품 관세 부과 필요성 제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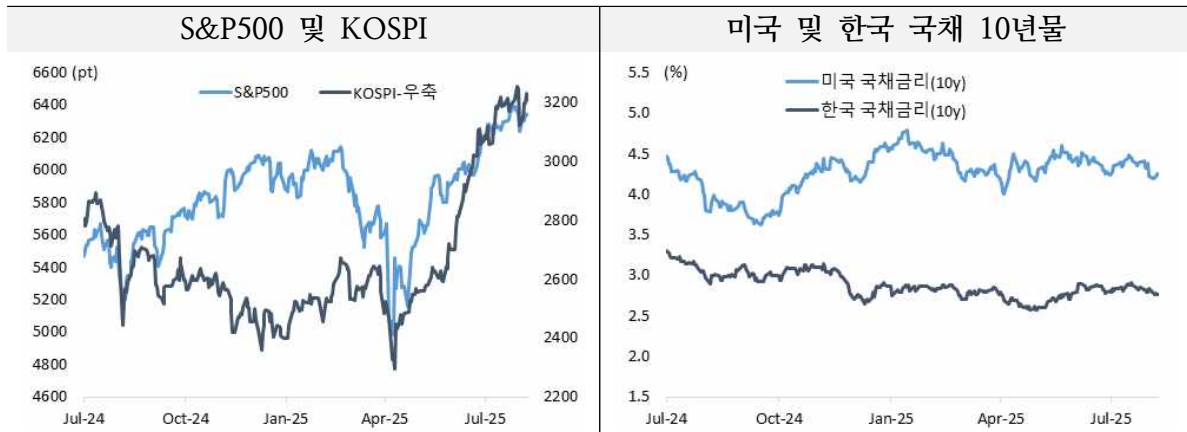
- 나바로 무역고문은 미국 의약품의 해외의존도가 높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. 다만 구체적 시기나 수치는 미언급

주요 경제지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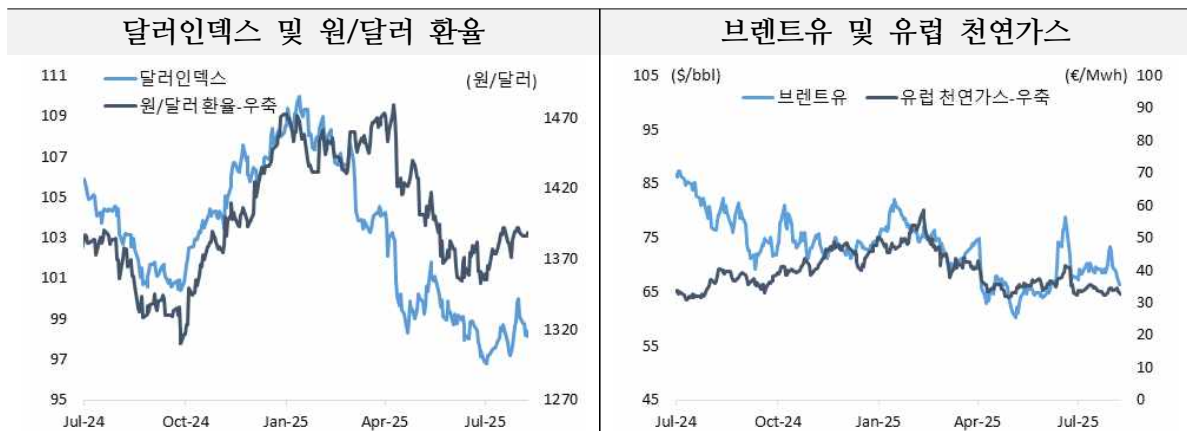
■ 주요 경제 이벤트(8/15일,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7월 소매판매, 8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
- 유로존 7월 소비자물가, 중국 7월 소비·투자·생산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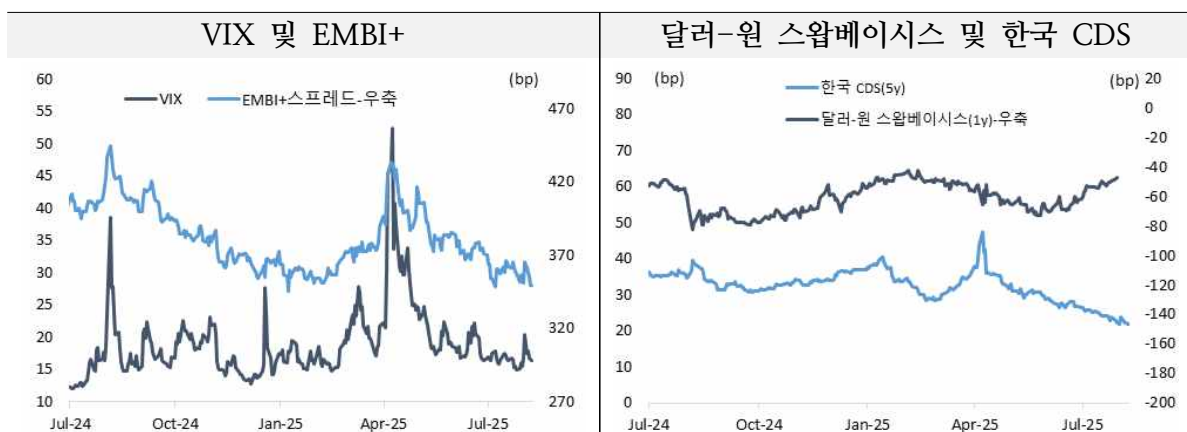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61, E-mail kbkim@kcif.or.kr